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을 향하여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건축의 시작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건축문화의 진흥과 국민 삶의 질,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의 제정은, 당시 개발과 토건 시대 건축가치에 대한 종식 선언이나 다름없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건설과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있던 건축은 대부분 사업과 재산가치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물과 이를 둘러싼 공간환경이 국민의 생활터전으로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기본법」이 건축의 공공성을 강조함에 따라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 환경 전반의 수준이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었고,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정책의 그림은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조직되어 그 내용을 심의하고 원활한 작동을 건인해 왔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이 그 첫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건축은 시작’되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 건축 환경의 변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후 5년여 동안 기본계획이 건축계 전반에 미친 영향은 괄목할 만하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해 건축 관계 법령이 정비되고 각종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정책인프라가 강화되었으며,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와 건축기준도 정비되었다.

특히 공간환경과 건축물의 지속가능한 가치 추구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6.) 등이 새로 제정되었고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2013.8.), 건축문화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2013.6.)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 등 정책 목표에 따른 체계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건축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 선도의 다양한 시범사업으로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54건), 도시재생선도사업(13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38건) 등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건축서비스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건축정책의 추진으로 저성장 국면과 주택공급 수요의 하락 등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시장은 녹색 건축 및 건축서비스 산업, 건축자산, 마을재생 등의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평가사와 마을건축가 등 새로운 업무영역도 개척되었으며 건설산업 중 건축업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축시장이 점차 다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건축정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건축과 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한 측면에서 일어났다. 주택의 보유 가치보다는 이용 가치**를 우선하게 되었고, 공간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증가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거보다는 필요와 기호에 맞게 고쳐서 사는 일에 일반적인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전시·출판 분야에서도 내집 짓기, 우리 동네 가꾸기를 다룬 프로그램과 서적들이 각광받고 있다. 즉 건축이 주변인의 삶과 사회를 관통하는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건축정책의 효용과 건축문화의 가치

물론 이러한 성과들이 모두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부터 기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고 선도해 온 건축정책의 방향에 수렴해 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건축과 공간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가하며, 또한 건축과 관련된 사회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 건축정책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즉 건축정책의

* 2009년 55%였던 건축업의 비중이 2013년 61.7%로 상승

** 거주 가치에 대한 선호는 2010년 35.7%에서 2013년 60.8%로 증가

방향에 따라 새로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고 건축정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어젠다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좋은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며,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한다.

또한 창조적이고 좋은 디자인이 정부 정책에 의해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제 기반 조성은 건축정책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 클라이언트들은 건축정책에서 제시하는 경쟁 방식과 디자인 기준을 통해 더 합리적인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건축정책을 구체화하는 위탁연구 추진과 디자인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립 등이 가능하다. 대학에서는 건축정책을 기반으로 더 나은 연구와 교육을 장려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민이 매일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시스템의 철학을 주도하는 건축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난해 공개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의 비전과 목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건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공간의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체계를 개선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며, 건축정책과 건축도시디자인 체계를 정비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야말로, 현재의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이 시대에 공유할 수 있는 건축문화일 것이다.

건축정책이 추구하는 비전대로 건축문화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일은 건축물과 건축행위가 삶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삶의 표현이자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 중요하다. 유럽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해 온 네덜란드의 경우 제4차 건축정책부터 문화정책인 벨베데레 정책(Belvedere policy)을 통합시킴으로써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건축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질 좋은 환경은 도시사회의 필수적인 지표로서, 시대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좋은 건물과 장소들은 우리에게 각각의 개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감·정체성·공동체의식을 주고 일상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장소의 가치는 사회적·경제적 투자를 유발하고 각종 사업을 지속시키는 필수적인 기반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축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

지난해 칠레의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Alejandro Aravena)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았다. 그의 수상작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자립지원형 증설주택*으로, 지역과 주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건축과 건축가가 지역과 주민,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묵직한 소명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여 만드는 건축과 공간환경은 미래의 건축자산이 되므로 우리 후대에게 훌륭한 자산을 물려준다는 적극적인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건축정책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삶의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건축정책이 미래 기술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건축 관련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개성과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손쉽게 안심하고 짓거나 선택할 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이는 중요한 건축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아파트로 대변되는 대량의 주택공급에 치우친 주택 관련 제도에서 소외된, 대표적 서민 주거인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범주를 마련하는 일은 당면 과제이다.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중요한 건축정책과제 중 하나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이 적재적소에 공급되고 관리되도록 국가공공건축의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에 즈음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축정책의 운영방향이 ‘국민이 행복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축계가 그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정책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 그가 설계한 칠레 이키케(Oquique) 시, 키타 먼로이(Quinta Monroy) 지역의 증설주택(half of a good house)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으로, 부족한 정부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의 절반만 완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확장이 용이하도록 1층과 2층의 바닥만 설계한 주택이다.